

3) 혼례

(1) 의혼(議婚)

혼기에 달한 자녀가 있으면 잘 아는 사람이나 중매쟁이를 통해 혼인을 의논한다. 중매쟁이는 주로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보낸다. 어느 정도 의혼이 되면 사주단자를 신부집에 보내고 결혼 의사를 물어본다. 이를 납채(納采)라 한다. 신부집에서 동의하면 신부의 생년월일과 가계를 알아본다. 문명(問名)이 합당하면 신랑집에서 공합을 보고 결혼할 것을 알린다. 이를 연길(涓吉) 또는 고기(告期)라고도 한다.

신부측에서는 날반이를 신랑측에 보내고 신랑측에서는 혼서지와 예물을 보낸다. 예물은 천현(天玄)을 뜻하는 청단과 지훈(地燠)을 뜻하는 적단을 넣어서 보낸다. 또는 함 속에 청·홍의 견사와 비단 두 필, 팔 7개, 쌀, 무명(미영)과 고추 5개, 그리고 콩과 팥이 들어 있는 비단주머니 등을 넣기도 한다. 혼약의 물증으로 신랑이 신부집에 보내는 폐백은 수복, 부귀, 다남(多男)과 재액을 몰아내는 주술성이 있다.

(2) 혼인의례

전안일(奠雁日)이 혼례를 올리는 날이다. 신랑이 대례를 올리기 위하여 집을 떠나는 초행부터 소례, 대례를 치르고 첫날밤을 지내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행까지의 과정을 보통 대례라 한다. 조부나 부친이 상객이 되어 초행길에 신랑을 인도한다. 상객을 따라 가는 후행은 삼촌이나 장형, 우인 대표들이다. 후행 중 놀기 좋아하고 장난기가 있는 함진아비가 동행한다. 신랑은 처음부터 사모관대를 두른 예복을 입고 함축선을 들어 얼굴을 가리며 복이 달아난다고 말을 하지 않은 채 말이나 가마를 타고 간다. 신부집 미처 못 가서 잠시 쉬는 전방에서 신랑이 조관과 관복으로 갈아입는다.

혼례의 식장은 신부집 마당으로, 명석을 깔고 동서로 차일을 치고 휘장을 둘러 꾸민다. 정남 방향으로 1m 정도 높이의 교배상을 가설하고 그뒤에 병풍을 치며 차례상을 만든다. 혼례가 시작되기 전에 시에 맞추어 얼굴에 먹칠을 한 함진아비가 함을 지고 들어가 혼주에게 함을 판다. 이때에 함팔이 놀이가 시작된다. 혼주는 함진아비에게 여비와 술값을 주고 함을 받아 상 위에 놓고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방위를 보아 놓는다. 함을 살며시 열어 먼저 잡히는 옷감 색이 홍색이면 금실이 좋고 잘산다고 한다.

교배상에는 장담은 동쪽 신랑측에 놓고 암담은 서쪽 신부측에 놓는다. 또한 청실과 홍실, 촛대 두 개, 동백나무에 함박꽃을 만들어 꽃은 꽃병 두 개, 표주박 술잔 둘, 밤, 대추, 은행, 떡, 팥, 콩, 명씨를 놓는다. 또 무를 깎아 송어(잉어)를 만들어 놓는데 신랑측 송어에는 대추를, 신부측 송어에는 밤을 끼운다. 신랑이 전방을 나와 신부집으로 오는 길에 탈선을 당해 마산풍월을 받는다. 신부측 젊은이들이 말을 가로막고 시를 읊어 신랑의 대구를 듣는다. 이를 못하면 예를 치른 후 동상례(同床禮)를 받지 못한다. 순천지역의 탈선놀이를 소개한다. 신랑의 행렬이 마을 입구에 들어오면 청년 7~8명이 길을 막고 신랑 앞에 나아가 문장과 파자(破字)로 말을 한다.

청년 : 何處行客이 率奴者하고 入於初門之事는 何事냐고 여쭙어라

신랑 : 十口示曲豆 行次라고 여쭙어라

(古禮라고 여쭙어라)
 청년 : 言登日月 하라고 여쭙어라
 (證明 하라고 여쭙어라)
 신랑 : 一人十四点 이라고 여쭙어라
 (無라고 여쭙어라)
 청년 : 그림 南犬戶羽 하라고 여쭙어라
 (獻扇 하라고 여쭙어라)
 신랑 : 冬不扇夏不爐라고 여쭙어라
 (겨울에 부채가 필요 없고 여름에 화로가 필요치 않으니 부채를 갖지 않았다고 여쭙어라)
 청년 : 入鄉順俗 하고 南犬戶羽 하라고 여쭙어라
 (우리 동네 풍속에 따르고 부채를 내놓으라고 여쭙어라)
 청년 : 受草 하고 行去 하라고 여쭙어라

신부측에서 마중 나온 인접(대반)에 의해 신부집 가까운 전방에서 가벼운 요기를 하고 사모 관대를 착용하여 기러기를 앞세우고 혼가택으로 나아갈 때 마을 노장들로부터 탈선이 이루어진다.

노장 : 南犬戶羽 하라고 여쭙어라
 (獻扇, 부채를 내놓으라고 여쭙어라)
 신랑 : 丁口竹天 이라고 여쭙어라
 (가소롭다고 여쭙어라)
 노장 : 月犬火則이면 艮走去 하라고 여쭙어라
 (然則이면 退去, 그러면 물러가라고 여쭙어라)
 신랑 : 女氏日示曲豆行 이라고 여쭙어라
 (婚禮行 이라고 여쭙어라)
 노장 : 十目所視 十手所指 하니 何如之事냐고 여쭙어라
 (열 개의 눈이 보고 열 개의 손이 가리키니 어떤 일이냐고 여쭙어라—증인이 집중해서 본다)
 신랑 : 人門日의 大事라 여쭙어라
 (人間의 큰일이라고 여쭙어라)
 노장 : 南犬戶羽 하지 않으려면 一卜車喬 하라고 여쭙어라
 (獻扇 하지 않으려면 下轎 하라고 여쭙어라)

이때 신랑이 중방인을 통해서 부채를 건네주는 체하면서 땅에 떨어뜨리니 노장 한 사람이 부채를 주우려고 엎드린다.

신랑 : 오-나 그간 잘 있었느냐

이때에 하인들과 가마꾼들이 와 - 하고 밀어붙여 대례청으로 입소한다. 의례는 ‘홀재비(집례, 주례)’가 홀기를 부름에 따라 진행된다.

초례(醮禮)

新郎就醮禮廳 - 新郎東向立 - 新婦出 - 新郎正面 - 新郎新婦跪 - 盥洗執中 - 新郎新婦興 - 損婦就度 - 新婦再拜 - 新婦跪 - 新郎答一拜 - 新婦興 - 新婦再拜 - 新婦跪 - 新郎答一拜 - 新郎新婦跪 - 行砂盃禮 - 行盃瓠禮 - 禮畢 - 新郎新婦各歸處

(3) 혼후의례

대례청에서 예를 마치고 인접의 부축을 받아 신랑·신부가 병풍을 친 안방에 들거나 신랑은 큰방에, 신부는 골방에 들어가 생일·일진을 보아 방위를 정하고 앉는다. 신랑이 방에 들 때 대반이 읊을 쳐준다. 신랑이 관대를 벗고 신부집에서 만든 새 옷을 입고 장인·장모에게 큰 절하고 나서 요기상을 받고 다음에 큰상을 받는다. 큰상은 상, 객상과 신랑상이 같은 모양으로 나온다. 큰상에는 전열에 동백나무와 함박꽃을 꽂고, 둘째 열에는 송어·떡·밤·곶감·대추·과일을 놓고, 셋째 열에는 탕류를 놓으며, 넷째 열에는 편육·나물 등을 놓고 여기에 밥과 국이 오른다. 신랑이 큰상을 받으면 음식을 조금씩 병풍 너머로 넘겨 신부에게 주면 먹는 척만 하고 신행 때 자기 집으로 가져간다.

큰상을 물리고 당일신행(當日于歸 : 길 채러 간다)을 하거나 3일째 신행을 한다. 옛날에는 ‘일년을 먹여’ 또는 ‘삼년을 먹여(해먹힌다)’ 다시 날을 잡아 음식(퇴생)을 장만하여 신행을 하였다. 당일신행을 하지 못하면 신부집 안방이나 골방에 신방을 꾸민다. 신랑과 신부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신부의 어머니나 혹은 일가 중 복 많은 여자가 방에 병풍을 뒤쪽으로 치우고 자리를 깔고 나온다. 또는 신방에 꽃병풍을 치고 촛불을 새로 켜고 냉수 한 그릇과 요강에 솜이나 등겨를 담아놓고 이부자리를 깔고 나오면, 신랑이 먼저 들어가고 이어 신부가 들어간다. 잠시 후 요기상(주안상·점상)이 들어오면 둘이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신부가 신랑에게 술을 권하면 이를 받아 마신다. 이때 밤을 먼저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의식적으로 밤을 먼저 먹는다.

상을 윗목에 물리면 신부가 먼저 신랑의 옷을 위로부터 토시·버선·윗도리 순으로 벗기고 다음에 신랑이 신부의 족두리부터 풀어 예복을 벗기며 옷은 버선부터 벗긴다. 주안상이 들어오면 신방 엿보기를 하는데 동네 아주머니, 나이 젊은 사위나 며느리들이 창호지에 침을 묻혀 손가락으로 뚫고 신랑·신부의 거동을 엿본다. 신방 엿보기를 할 때는 어수선하게 떠드는 것이 좋다. 벗긴 옷을 병풍에 걸며 불은 남자가 이불 자락이나 부채, 홀, 자로 꺼야 한다. 신부의 옷을 벗기는데 신랑이 신부의 손을 먼저 잡으면 맺손이 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 머리채를 잡고 싸우거나 상처하게 되고, 가슴을 만지면 유종(乳腫)을 앓게 된다고 하여 받을 먼저 만져보고 가슴풀이를 해준다. 그 다음에 허리를 안아주어야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산다고 한다. 신방에 들어가도 어른의 명에 따라 함궁을 못하게 되며, 또한 신부의 형편에 따

라 어느 일정한 날까지 합궁을 하지 못한다.

다음날 아침 신랑은 신부의 일가에게 절을 하며 술을 올린다. 당일신행인 경우 동상례는 신랑의 재행이 있는 후에 행하나 신행을 3일 만에 하는 곳에서는 혼례 다음날 행한다. 동상례는 신랑이 신부측 마을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는 것인데 마을 청년들과 처족들이 신랑을 다루게 된다. 동상례를 지낸 다음날 신행길에 오른다. 신행이 해를 넘기는 경우에는 신랑만 돌아가는데 처남이 데려다준다. 신행 때 신부는 노랑저고리와 빨간 치마를 입고 가마를 타고 간다. 가마 방석 밑에 고추와 숯을 넣어주며 가마 네 귀에 세미쌀을 놓아 당산을 지낼 때 뿌리게 한다.

신행길에는 상객, 후행, 짐꾼들이 따르며 소리꾼과 가마꾼들이 걸메당 소리를 부른다. 다른 신부가마와 마주치면 가마싸움(길싸움)을 하며 신랑 마을에 들어서면 정마다툼을 한다. 신랑 집 문전에서는 가마 뒤에 따라온 잡귀를 내몰기 위해 벗짚을 태우며 이 불 속으로 가마가 들어오게 한다. 제상에는 메, 소금, 무명씨, 흰 사금파리, 검은 사금파리를 놓아두었다가 가마가 대문으로 들어올 때 이를 뿌리며 무녀가 덕물립 비빔을 한다. 집에 들어서면 신랑이 가마 문을 열어주고, 신부는 가마에서 내려 시집의 토신에 대한 예의로 하늘을 보고 절을 한다. 신부는 주점에서 잠시 쉬면서 옷과 화장을 고치고 큰방에 들어간다.

신부가 새 집에 와서 신랑 일가에게 인사드리는 것을 폐백(현구례, 구고례)이라고 하며 신행날 저녁쯤에 한다. 성주님에게 재배하고 사당 참례를 한 후 부모·조부모께 사배, 백부모·이모에게 재배, 동행렬에는 맞절한다. 폐백상은 닭을 색칠하여 꿩 모양으로 만들고 문어를 봉어(鳳魚)라 하고 과일, 밤, 대추, 건시를 놓는다. 폐백 드린 후 신부가 가져온 예물을 드린다. 시부모에게는 옷을 드리고 나머지 식구에게는 버선을 준다. 신부도 신랑집에서 큰상을 받는다. 시어머니는 다음날부터 새 며느리를 데리고 친척과 이웃을 방문하여 인사를 시킨다. 재행이 있으면 신부 인사가 끝나고 가기도 한다. 신부는 인사 이외는 1년간 출입을 삼간다. 신부는 시집온 지 3일 만에 부엌에 가서 일을 한다. 신부는 매일 아침 시부모를 뵙고 문안 인사를 한다. 보통 3일이 지나면 시부모가 귀찮아서 그만하라고 하나 3년까지 하는 예도 있다.

혼례를 올린 후 처음으로 신랑·신부가 신부집에 가는 것을 '재행간다(재행걸음, 근행간다)'고 한다. 재행은 시집온 지 3일 만에 가는 것이 보통이나 1년 후에 가는 지역도 있다. 재행갈 때는 일가와 동네에 돌릴 음식을 장만하고 부모의 옷을 가지고 간다. 당일신행인 경우 재행가서 동상례를 치른다. 이때 장모는 신랑을 데리고 일가친척을 방문한다. 올 때는 장모가 해준 차반(예물과 음식)을 가지고 온다. 이로써 혼례에 따른 모든 절차가 끝난다.